강원 건설업계 "내년 SOC사업 국비 정상화해달라"

원주천 댐·춘천~속초 고속道 건설
문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내년 예산 대폭 깎여 증액 촉구

송기헌 의원 "예산안 정상화에 전력
소규모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챙길것"

강원도 건설업계가 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비 정상화에 나섰다.

4차산업 활성화, 강원도 성장거점 육성, 건설계획기간 내 사업 착수, 산업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SOC 사업의 내년 예산이 크게 깎이자 이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김정섭 건협 도회 부회장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회장은 원주지역 국비지원 SOC 사업과 원주 외 강원도 전체지역 국비지원 SOC 사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원주지역 사업 지원 요청분은 191억원, 강원도 지역은 290억원으로 총액 481억원 규모다.

사업별로 원주 사업은 원주천 댐 건설사업 80억원 증액 요청이 가장 규모가 컸다.

원주는 집중호우가 와도 도심하천에 제방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주천 댐 건설은 상류부 홍수방어 대책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건설 중이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80억원, 시비 2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총합 111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11억원)으로 89억원이 깎였다.

이에 건협 강원도회는 2차 댐 건설 보상비 확충과 이설도로 개설 정상 추진을 위해 국비 80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도 44억원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강원혁신 지식산업센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확보를 위해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건설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57억원으로 국비 160억원이 지원된다. 센터 건설을 위해 내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으로 66억원이 결정되면서 44억원 깎였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모처에서 오인철 강원도회 회장(왼쪽 네번째)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강원도 SOC 사업 국비 증액 요청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주요 SOC사업 국비지원 요청 사업 목록

사업명	위치	신청액	정부 반영안
원주천 댐 건설사업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38-5번지	200억원	111억원
국지도 49호선(포진~문막) 도로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 문막리	70억원	10억원
문막 일반산업단지 재생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22번지	58억원	10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92.52km 구간	200억원	17억원

강원도회 관계자는 "내년 센터 건립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44억원 증액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허브 건립에 국비 10억원, 국지도 88호선 도로건설 설계비 10억원 반영, 국지도 49호선 문막도로 23억원 증액, 문막 일단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4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강원도 SOC 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200억원 국비 반영 요청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 사업은 춘천에서 속초까지 92.52㎞ 구간에 설계속도 250㎞/h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획기적인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강원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해 이 사업은 국비로 200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예산안은 17억원만 반영돼 183억원이 줄었다.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지연돼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후속 추진 계획도 함께 미뤄졌기 때문이다.

도 건설업계에선 환경영향 평가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공사비 2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건설업계의 증액 요청을 들은 송기헌 의원은 감축된 예산안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송기헌 의원은 지역의 대형 SOC사업은 물론 노후 인프라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 선형개량 및 보수 등 지역의 중소 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정부 예산안서 빠졌던 SOC사업 국회서 '심폐소생'… 추진 기대감

강릉~제진 철도, 양평~이천 도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등
내년 예산안에 잇따라 반영

정치권도 SOC 투자 확대 공감대
예결위 심사 통과 가능성에 무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년 예산 심의과정서 신규 반영된 SOC 사업

- 강릉~제진 철도(설계비 10억원)
- 양평~이천 고속도로(사업비 40억원)
-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설계비 70억원)
- 김천~전주 복선전철(타당성조사 1억원)
- 경부선 김천~구미 현대화 사업(타당성조사 5억원)
- 울릉도 소형 공항(사업비 30억원)
- 흑산도 소형 공항(공사비 100억원)
- 새만금공항(기본계획 수립 25억원)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강릉~제진 철도 관련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로 반영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104.6㎞ 길이로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의 남측 단절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릉~제진 구간 철도가 완공되면 부산에서부터 북한 라진을 거쳐 러시아 하산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된다. 판문점 선언 이후 강릉~제진 구간에 대한 사업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정부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위에서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예산도 국회에서 새로 반영됐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가운데 인천~안산 구간과 포천~화도 구간과 더불어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으로, 올해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전망이다.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40억원이 책정되면서 내년에 공사 발주와 착공이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부 편성한 내년 예산에는 제외됐지만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70억원이 배정됐다.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사이에 고속철로를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업은 수서발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평택에서 합류되면서 나타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루에 투입 가능한 철도 운행 횟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가 열차 투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천~전주 복선전철과 경부선 김천~구미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조사 예산도 각각 1억원과 5억원이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 새로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울릉도 소형 공항 건설(30억원)과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100억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25억원) 등도 국회에서 예산이 부활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들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SOC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국회에서도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전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